

## CCAP를 이용한 반편견교육이 어린이들의 인종편견에 미치는 영향

고아라\*

### 요약

소위 단일민족 신화에 의해 교육 받고 살아온 우리나라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거주 외국인과의 교류 증가, 국제결혼 증가, 해외교류 증가 등으로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CCAP(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 프로그램에 반편견교육의 개념을 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이 시대적인 요구—세계 모든 사람들과 편견 없이 교류하며 스스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것—에 부응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의 고안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가리지 않고 여러 문화권에 대한 지식의 양을 증가 시킨다. 둘째, 문화교류를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즐거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직접적인 반편견교육을 실시하여 편견 없는 교류의 좋은 점을 알게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2007년 3월에서 10월까지 수원의 H초등학교 3학

---

\* 수원 금곡초등학교 교사, mnms\_eg@naver.com

년 36명을 대상으로 CCAP를 이용한 반편견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질문지법, 관찰법, 문헌조사법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종 간 편견이 줄어들고 다른 인종 간 교류의 의사가 확대되었다. 둘째, 편견의 나쁜 점을 알고 편견 없이 교류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알고 국제적 시각을 기르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결혼에 의한 혼혈인 어린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써 본 연구지는 CCAP를 이용한 반편견 프로그램이 수정·보완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혹은 여타의 학교 급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반편견교육, CCAP, 혼혈인, 인종, 문화교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05년 수도권 10개 초등학교 어린이 4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sup>1</sup> 초등학생은 흑인에 대해 다른 인종에 비해 비위생적이다, 어색하다, 불친절하다, 어리석다, 게으르다, 폭력적이다,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인에게는 다른 인종에 비해 가난하다, 지위가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전국의 3개 초등학교 어린이 599명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안(혼혈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

1 연구대상 10학교 중 잠실 J초등학교 어린이들은 CCAP를 경험하였으며 전체 설문 결과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2 이 연구는 MBC의 'MBC 스페셜' 팀과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송을 통해 그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일부 어린이들은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보이기도 했다.<sup>2</sup> 학생의 95%는 혼혈인 친구를 반장으로 뽑지 않겠다고 답했고, 37%의 학생들은 혼혈인이 지위가 낮다고 생각했으며, 30%가 넘는 학생들은 얼마나 아빠 둘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한국인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이주노동자 자녀 81명 중 42명인 52%가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30%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21세기는 세계화된 시대로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혼혈인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외국인노동자들과도 함께 살아야 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는 전체의 78.63%에 불과했고, 그나마 받은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1, 2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교육의 부재는 다시 인종 간 편견과 차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결코 한 나라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인종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반편견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미국의 교육학자 스택Stech(1994)는 히스패닉계 미국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어린이 2, 3학년층을 대상으로 유럽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토론과 인터뷰 수업을 3주 동안 실시한 결과, 각 인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아라, 2005). 또한 올포트Allport(1954)의 접촉 이론에 따르면 협동적

상호의존이 필요한 경우에 지속적이고 밀접한 접촉이 있으면 그에 대한 편견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클로어(Clore)(1978)는 인종혼합 여름캠프 운영에서 본 결과 친밀한 접촉(생활배치를 인종이 혼합되게), 협동적 상호작용(밥하고 불 피우는 공동적인 일을 하게 함), 동등한 지위(비슷한 배경의 야영자 선정)로 흑·백인을 고르게 배치하였는데 야영자 게임파트너에 대한 인종 간의 선택비율이 높아졌다(Tye,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각 인종들과의 유의미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실 안에서 한 나라, 한 시대의 문화만 아닌 여러 나라, 여러 시대의 문화가 교류했을 때 어린이들의 인종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즉, 다양한 문화를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서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과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어린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3. 연구문제

- 가. 여러 문화에 대한 지식을 늘리면 인종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나. 여러 인종의 사람들과 유의미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다. 반편견교육은 혼혈인에 대한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반편견교육

#### 1) 반편견교육의 정의

인종편견은 객관적이 근거가 결여된 상태로 특정 인종에 갖게 되는 판단이나 태도를 뜻한다. 이러한 편견은 특정 인종을 공정하지 않게 취급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태도로서 차별적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흑인들을 폭력적이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백인이 우월하고 똑똑하다고 믿는 것 역시 편견으로서 차별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교육을 목적에 따른 인간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교육이 반편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목적은 더먼-스파크와 ABC팀(1999)에 의해 제시되었다.

첫째, 자신의 정체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개인적 정체감 및 집단의 정체감과 관련된 것으로 우월감을 갖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둘째, 다양한 외모, 성, 계층, 인종,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감정이입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즉 각각의 신체적 특징, 능력, 사회적 행동,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셋째, 편견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불공평한 상황에 접했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 반편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편견적 행동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감정이입이 기초가 되어 불공정함과 편견에 직면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학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즉, 인종에 관한 비판견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인종편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판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관광식 교육과정이다. 관광식 교육과정(tourist curriculum)은 다문화교육에서 많이 나타나는 한 형태로서, 다른 문화의 '색다른' 차이점을 강조하여 이를 실생활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관광을 다녀오듯 아동들에게 즐거운 경험과 단편적의 지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인종에 관심을 두고 잠시 바라보게 할 뿐 다양한 삶의 가치, 방식, 신념, 편견 없는 태도,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관광식 교육과정은 다른 인종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아동에게 줄 수 있어 오히려 편견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있다.

## 2. CCAP활동

### 1) CCAP활동의 목적과 특징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에게 여러 인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유의미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의 CCAP(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수업을 신청하였다. CCAP수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문화교실 선생님이 교실에 초청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CCAP 홈페이지에 서는 아래와 같이 CCAP활동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 학생들의 문화 간 이해 강화
- 모든 참가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세계화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 습득 장려
- 상호작용의 촉진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건설적인 파트너십 창조

김난희(2001)는 이에 따른 CCAP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CCAP활동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들이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배우도록 유도하며, 활동 내용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과 같이 외국노래 배우기, 음식 만들어 먹어보기, 전통 놀이 하기, 외국의 전통 춤 따라하기, 외국문화 비디오 보기, 외국어 배우기 등의 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우리나라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생소한 나라에 대한 문화 체험을 통해 그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여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문화 한 조각을 받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던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없던 나라에 대해 CCAP 활동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고 방송매체 등에서 접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단일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우리나라 학생들이 현재 혹은 미래에 만나야 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과의 접촉과 그 나라의 문화 체험을

통해 상호이해와 존중, 관용을 베풀 줄 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 기존의 문화 체험과 동시에 외국인을 교실 안으로 초대하여 우리의 교실문화를 외국인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내가 속하고 있는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하며 교과서나 책을 통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가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한 새로운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외국인 자원인력을 활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국제문제(타 민족의 인권문제, 타 문화에 대한 배타성)의 교육적 해결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과 절차

#### 1. 연구 설계

##### 1) CCAP를 이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원의 H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6명 아동 중, 장기 해외 거주 경험자는 없으며 혼혈인과 교류해본 아동도 없었다.

##### (2) 연간 수업계획

CCAP를 이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하여 연간 프로그램을

잘 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편견 형성의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여 타 인종(외국인)과의 즐거운 경험을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반편견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국가는 CCAP를 운영하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표 1 CCAP를 이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연간 수업계획

시기	활동 주제
3월	유네스코의 역할과 CCAP활동의 의의
4월	카메룬
5월	방글라데시
6월	인종에 관한 반편견수업
6월	인도네시아
7월	혼혈인에 관한 반편견수업
9월	중국
10월	대한민국
10월	네팔

### (3) CCAP 관련 수업모형

타 인종(외국인)의 출신국에 대한 인문 지리적 지식의 증가를 위해 개별과 그룹을 통해 조사학습과 정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수업에서는 기존의 CCAP수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파워포인트 발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문화교류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미리 협의를 거쳐 수업의 방향을 조절하고 수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의논하였다. 체험적 수업이 끝난 후 작은 책 만들기로 정리하여 경험을 공유하였다.

표 2 | CCAP 관련 수업모형

실천 과제	중점사항	실천내용	지도 방법
인지적 문화 수업	각 나라의 지리적 환경	세계지도에서 찾아 백지도 그리고 지명 넣어 보기	조사·지도 학습, 개별 및 그룹
	각 나라의 국기	국기를 그리고 그 뜻 알아보기	
	각 나라의 언어	각 나라의 간단한 언어 알아보기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의 모습 알아보기	
외국인 자원봉 사자와 함께 하는 체험적 문화 수업	각 나라의 언어	간단한 언어로 인사해보기	수용적 인 학습 분위기 조성
	외국인 선생님 알아보기	개인적인 질문, 포옹하고 사인 받기	
	환영의 공연	우리의 문화를 이용하여 공연하기	
	경제·사회적 상황과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설명 듣기	경제·사회적 상황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음식문화 <sup>3</sup>	자원봉사자 출신국의 대표적인 음식 알아보고 만들어보기, 한국 음식 함께 만들어보기	
체험활동	각 나라 어린이들의 놀이 해보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옷입어보기		
정리 및 평가	새롭게 알게 된 점과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점 정리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그림그리기	
	책 만들기	책 만들어 전시하기, 인형만들기	

#### (4) 교실 환경 구성

세계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여 아동들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해당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이 모든 수업 구성은 역시 수원의 H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CCAP활동을 평가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특히 가장 유익했던 체험을 묻는 질문에 음식문화 체험은 1번밖에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어 이를 확대하였다.

4 실제로 학급에 혼혈 어린이가 있는 경우 주의할 점: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 2) 반편견수업 지도안

### (1) 혼혈인에 관한 반편견수업 지도안

표 3 | 혼혈인에 관한 반편견수업 지도안

학습 목표	피부색에 따른 편견을 버리고 혼혈 어린이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내용		자료
	교수	학생	
도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 유발 '시킴둥이'<sup>4</sup>라고 올려진 우리 반 인터넷 카페의 글을 보면서 생각해보기 - 왜 시킴둥이라는 말을 썼나? - 시킴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제시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해보기 - 우리 반 어린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반 어린이가 한 것이다. - 시킴둥이라는 말을 쓰면 기분이 나쁘므로 쓰면 안 된다.</li> </ul>	인터넷이 연결된 프로젝션 TV
문제 제시	피부색에 따른 편견을 버리고 혼혈 어린이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활동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1 - 다양한 피부색을 하고 있지요 - 신문, 잡지에서 다양한 피부색을 골라 콜라주를 하여봅시다. - 왜 피부색이 다를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색이 다른 까닭 알기 - 같은 피부색이라도 명암의 차이가 있다. 머리카락 색이나 눈·코·입의 모습도 서로 다르다. - 자연환경에 적응하려는 자연스러운 모습 때문이다.</li> </ul>	잡지, 신문, 풀, 가위, 도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2 - 『깜근이 엄마』 읽어보기 - 혼혈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가요? - 이 글에서 왜 친구들은 명근이를 깜근이라고 불렀나요? - 내가 깜근이라면 어땠을까요? - 깜근이를 놀리는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견에 비판적인 행동하기 - 혼혈 어린이의 개념알기 -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기 - 명근이와 명근이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li> </ul>	『깜근이 엄마』, 편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3 - 혼혈 어린이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태도 가지기 - 외모로 친구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 '다름'과 '틀림'의 차이점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편견 태도 가지기 - 외모로 친구를 평가했을 때의 나쁜 점 알기 - 친구의 소중함 알기 - '다르다'와 '틀리다'의 의미 알기</li> </ul>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 혼혈 어린이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 발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혈 어린이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태도 가지기 - 혼혈 어린이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 발표한다.</li> </ul>	

## (2) 인종에 관한 반편견수업 지도안

표 4 인종에 관한 반편견수업 지도안

학습 목표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 과정	학습 활동		자료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에 관한 동영상 시청하기</li> <li>- 6·25는 언제 일어난 전쟁인가요?</li> <li>- 6·25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의 싸움인가요?</li> </ul>		영상 자료															
활동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1 -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 알기</li> </ul> <p>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영국, 에티오피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호주</p>		인터넷 프로젝션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2 - 터키, 에티오피아, 태국군의 활약상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의 긍정적 상호작용 알기</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참전병 수</th> <th>사망</th> <th>부상</th> </tr> </thead> <tbody> <tr> <td>터키</td> <td>14,936명</td> <td>741명</td> <td>2,068명</td> </tr> <tr> <td>에티오피아</td> <td>3,518명</td> <td>121명</td> <td>536명</td> </tr> <tr> <td>태국</td> <td>12,845명</td> <td>129명</td> <td>1,139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까닭은 무엇일까요?</li> <li>-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준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li> <li>-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li> </ul>			참전병 수	사망	부상	터키	14,936명	741명	2,068명	에티오피아	3,518명	121명	536명	태국	12,845명	129명	1,139명
	참전병 수	사망	부상															
터키	14,936명	741명	2,068명															
에티오피아	3,518명	121명	536명															
태국	12,845명	129명	1,139명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및 평가</li> <li>- 평가 OX 퀴즈</li> <li>- 서로 다른 인종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해 알기</li> </ul>																	

모인 학급에서는 각각의 피부색은 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신체적 특징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한다. 우리가 혼혈이라고 표현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 아름다운 피부색은 각 색의 혼합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부분 같은 민족이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섞인 학습에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신체적인 차이를 말할 때 특히 누구누구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하기 보다는 인간으로서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갈등 상황이 있을 경우 교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더번-스파크·ABC팀, 1999).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설문조사 결과

#### 1) 인종편견

##### (1)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인종

‘다음 중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실제로 접하고 상호작용을 해본 동북아인, 동남아인, 흑인들을 선택하였다. 2004년 동일 교에서 전 학년 205명을 상대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어린이로는 동북아인 118명, 백인 80명, 동남아인 12명, 흑인 5명의 순서로 나왔다.

표 5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인종

인종	동북아인	동남아인	흑인	백인	계
명	12	7	13	4	36

##### (2) 각 인종별 관계 정도

각 인종과 맺고 싶은 관계의 정도는 전 인종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친구 혹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표 6 각 인종과 맺고 싶은 관계의 정도

관계 정도 \ 인종	흑인	동남아인	백인	동북아인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3	2	3
친구로 사귀고 싶다	18	20	19	19
이웃으로 지내고 싶다	13	13	14	11
될 수 있는 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다	2	0	1	2
계	36	36	36	36

## 2) 혼혈인에 대한 편견

### (1) 반장선거

‘반장으로 뽑고 싶은 어린이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23명의 어린이가 상관없다고 답하였고, 13명의 어린이가 기왕이면 한국 어린이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비슷한 질문에서 95%의 어린이들이 뽑지 않겠다고 한 것과 대조하여 생각해 보면 혼혈인에 관한 반편견적인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7 반장으로 뽑고 싶은 어린이

설문 내용	착하고 모범적인 어린이라면 혼혈 어린이도 괜찮다	똑같이 착하고 모범적이라면 한국 어린이에게 투표하겠다	말썹꾸러기 어린이라도 한국 어린이에게만 투표하겠다	말썹꾸러기 어린이라도 혼혈 어린이에게 투표하겠다	계
명	23	13	0	0	36

### (2) 관계 정도

아동들의 경우 혼혈 어린이와 맺고 싶은 관계는 친구나 이웃이며, 이웃보다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선택한 어린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8 혼혈 어린이와 맺고 싶은 관계

관계	명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0
친구로 사귀고 싶다	24
이웃으로 지내고 싶다	12
될 수 있는 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다	0
계	36

## 2. 변화들

CCAP를 이용한 반편견교육을 실시한 후 아동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종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함께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종 간 편견이 줄어들며, 다른 인종 간 교류의 의사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편견의 나쁜 점을 알고 편견 없이 교류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편견으로 인해 차별 받는 어린이(명근이)에 대한 많은 감정이입을 통해 반편견상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아래의 소감문들은 아동들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준다.

### 1) 인종편견이 감소한 소감문

영은 - 나는 카메룬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 요리를 할 때가 더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카메룬 선생님은 너무 재미있는 선생님인 것 같고 친절한 선생님인 것 같다. 다음에 또 와서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놀이는 요리, 체육, 게임이다. 또 나라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다. 질문도 하고 싶고…… 다음에는 카메룬 선생님 수업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훈 - 어제 칸 선생님이 오셔서 좋았다. 처음에 얼굴을 봤을 땐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엄마께 사진을 올려서 엄마가 본다고 했다. 칸 선생님이 안아주셨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다. 사인도 받고 너무 좋았다. 칸 선생님이 다음에 오신다고 했다. 칸 선생님 사랑해요.

영재 - 방글라데시 선생님이 오셨다. 카메룬 선생님처럼 얼굴이 새까맣다. 선생님이 요리도 해주셨다. 맛이 있고 특이했다. 우리들은 주먹밥을 만들어드렸다. 우리 조는 김치&소고기 주먹밥이다. 사인

도 받았다. 사인도 멋졌당 ♡. 다음엔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서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정말 재미있고 좋은 하루였다.

## 2)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 소감문

하진 - 나는 우리반에 짬근이 같은 어린이가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같이 놀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짬근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먼저 생각하고 친구할 것이다. 혼혈아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지 아이들은 왜 피하는 걸까?

연아 - 애들아 안녕? 난 연아야. 근데 너희들 멍근이를 놀리지 마. 놀림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그리고 친하게 지내. 아무리 국제결혼한 아들이라도 축구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친하게 지내. 그럼 안녕.

## 3) 자발적인 변화들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알고 국제적 시각을 기르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결혼에 의한 혼혈인 어린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체로 이는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났는데, 한 어린이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실에서 했던 문화체험과 외국인자원봉사 선생님을 만나는 데 성공하자,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났다. 수원화성문화제의 자매도시 음식 축제에도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반에서는 거의 참여가 없었던 UN 어린이그리기대회에 11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여 '서로 돕고 어울려 놀기'라는 제목의 그림이 입상하기도 했다. 외국

의 문화, 특히 혼혈 어린이나 국제결혼에 관한 책을 스스로 읽고 이를 다른 어린이들과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 V. 결론 및 제언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은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 다수자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번 연구는 지식의 증가와 유의미하고 즐거운 직접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소통하는 연습 기회의 제공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닌 CCAP에 직접적인 반편견교육을 융합하여 우리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CCAP를 이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게 하였다. 첫째, 인종 간 편견이 줄어들고 다른 인종 간 교류의 의사가 확대되었다. 둘째, 편견의 나쁜 점을 알고 편견 없이 교류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알고 국제적 시각을 기르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결혼에 의한 혼혈인 어린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정과 발전의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인종편견과 혼혈인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아라(2005). 수도권 초등학생의 인종 편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란희(2001). 유네스코 문화교실(CCPA) 활동을 통한 초등사회과 타문화 이해교육 실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더먼-스파크, 루이지, ABC팀(1999). 반편견 교육과정: 어린이에게 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도구. 이경우·이은화 옮김. 서울: 창지사.
- 오은영(2007). 깜근이 엄마: 울지마, 영원히 네 편이 되어줄게. 서울: 흥진 P&M.
- 타이, 케네스 위음(1997). 학교에서의 세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서의 세계교육 성공 사례. 김현덕 옮김. 서울: 오름.

## 자 료

CCAP 홈페이지(<http://ccap.unesco.or.kr>).

## Abstract

# The Influence of an Anti-bias Curriculum Using CCAP on Children's Racial Bias

Goh, Arah

(Teacher, Suwon Guemgok Elementary School)

Nowadays Korean people who have been educated and believed under homo-ethnic group myth have been changing in term of global era which encourages the increase of interracial marriage, interchange of international people and cultural exchange. I suggested an anti-bias curriculum using CCAP(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 to answer the critical demand that children should be educated to become people who get along with people from all-around world without bias and have positive self-identity.

The anti-bias curriculum using CCAP were designed to incorporate three strategies. First, the absolute quantity of knowledge covering all cultural areas including Korean culture should be increased. Secondly, children should have joyful experience through face-to-face cultural exchange. Thirdly, the anti-bias curriculum lead them directly to understand the advantage

of the situation without bia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3rd grade at H-elementary school from Mar. to Oct. 2007 and was arranged by survey research and observation method. The following influences and changes were found among the children. First, racial bias was diminished and then open aptitude to other race was increased. Secondly, children have recognized the bad aspect of racial bias. Thirdly, children we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 in global prospect. Furthermore, they show their spontaneous interest about interracial children.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is curriculum should be spreaded.

Key words: racial bias, anti-bias curriculum, CCAP